

# 회원사 소식

## (주)금성사

### 협력업체와 정보통신망 구축

금성사가 본사와 협력업체 간의 정보통신망을 구축,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24일 금성은 이 정보통신망(GIS VAN)에 3백여개社의 협력업체가 가입, 구매 주문관리 도착관리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네트워크는 서울, 창원, 평택의 대형컴퓨터와 각 협력업체의 개인용컴퓨터(PC)를 연결하고 있으며 STM이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금성은 시스템의 구축으로 JIT(Just In Time)체제를 마련, 납기단축 재고감소 및 원가절감등의 효과를 거두는 한편 다품종소량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금성소프트웨어(주)

### CAE프로그램 'Mechanica'공급

금성소프트웨어(대표:黃鍾봉)는 최근 미국의 CAE프로

그램 개발 전문업체인 RASNA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회사가 개발한 CAE제품 "Mechanica"를 국내에 공급키로 했다.

이번에 금성소프트웨어가 공급키로한 "Mechanica"는 설계된 각종 기계부품의 모델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형성하고 구조, 기구해석, 진동, 열 등 여러가지 역학적 분석을 통해 설계자가 의도하는 구동조건과 제품성능간의 타협점을 최적의 상태로 결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정역학적 해석(Applied Structure)과 동역학적 및 기구학적 해석(Applied Motion)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존의 CAE프로그램들이 설계한 모델을 역학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할 때 FEM(유한요소해석)기법을 사용, 메쉬(Mesh) 생성시 번거롭고 시간이 걸렸던 반면, 이 제품에서는 검증할 모델을 한번만 나누면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확도 수준까지 자동으로 해석을 수행해주는 새로운 기법인 GEM(형상요소법)을 최초로 채택함으로써 최적의 결과치를 얻을 수 있고, 이 결과에 따라 설계자가 대화식으로 필요한 설계변수 및 구동조건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제품을 설계해준다.

한편 이 제품은 PC 및 워크

스테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검증할 때 이용되는 MacNeal-Harder등의 테스트에서도 설계의 결과를 분석하는 정확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 대우통신(주)

### DLMS공급권 획득

대우통신(대표:朴성규)은 한국통신이 올 상반기중 도입 운용키로 한 국제통신망관리 시스템(Digital Link Management System)의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대우통신은 지난달 26일 조달청이 실시한 국제통신망관리 시스템(DLMS)국제입찰에서 미국 텔라스社 대용량 회선 분배장치(DCS)등 장비를 2백70만달러에 제안,美社를 제치고 공급권을 따냈다.

이에 따라 대우측은 오는 6월까지 서울, 부산, 제주, 보은, 금산등 지역에 5대의 DCS를 설치, 국제통신망관리를 완전 자동화할 방침이다.

이번 대우가 공급키로한 국제통신망관리시스템은 일본, 미국등 세계 각국과의 국제전화 및 데이터통신을 종합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를 한꺼번에 1만2천명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국제

통신망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 삼성물산(주)

#### 해외 DB부문 대폭 보강

삼성물산(대표 **李필곤**)은 오는 92년의 자본자유화와 관련, 최근 국내에서 국제금융DB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의 중합금융 DB인 「쿼트론」(Quotron)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쿼트론금융DB는 로이터 모니터, 텔레레이트 및 나이트리더와 함께 세계 4대 리얼타임 금융서비스로 인정받고 있는데 현재 전세계적으로 10만여대의 터미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쿼트론의 국내 서비스망 구축을 위해 현재 한국데이터통신 및 한국통신과 회선구축방식·요금체계·사후관리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한편 삼성물산은 쿼트론의 예도 이미 오르빗, BRS, 컴라인 DB등도 국내 대행판매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국내에 공급해오고 있는 COM-LINE정보는 일본내 90여종의 신문 잡지 기사와 통신 화학 전자 의학 자동차등 30여개 분야에 관한 산업전반의 정보들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또 88년 7월과 89년 7월부터 각각 서비스를 개시한 미국 맥스웰 온라인社의 특허, 과학, 기술중심의 오리빗과 의약, 비즈니스의 BRSDB는 현재 국내 사용자가 각각 60명 50명선에 이르고 있으며 문헌DB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삼성전자(주)

#### 고속디지틀 전송시스템 개발

삼성전자(대표 : **姜진구**)는 TI급 고속전송망을 통해 전화, 팩시밀리등 음성신호와 영상, 데이터등 디지틀 신호를 통합

하여 혼신, 잡음이 없는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속디지틀 다중화장비(모델명 SDNS16)를 개발, 지난달 22일 호텔新羅에서 제품 설명회를 가졌다.

삼성이 선보인 SDNS16은 기존에 전송이 가능했던 음성, 데이터외에 화상회의를 위한 영상신호까지도 디지틀신호로 한데 묶어 전송함으로써 복합통신이 가능하다.

또 최대 1.544Mbps급 고속 전송인 TI회선을 16회선까지 확장, 기존 통신서비스에 비해 최대 7.5배의 통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삼성데이터시스템(주)

#### 초고속 레이저프린터 시판

삼성데이터시스템(대표 : **林경춘**)은 최근 SPC(Samsung Personal Computer)에 가장 적합한 에뮬레이션을 내장, 분

당 11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는 초고속 레이저 프린터, LASER PRESS XP-11의 시판에 나섰다.

LASER PRESS XP-11은 300DPI(Dot Per Inch)의 고해상도를 지원하며 기본 메모

리가 2MB이고 52dB이하로 가동음을 유지해 소음이 적으며, 작고 가벼워 사무용으로 적합한 기종이다.

또 이 제품은 한글, 영문, 한자 등 선명하고 다양한 폰트가 제공되고 최대 B4 크기에서 최소 엽서크기까지 용지를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고 일반 전산용지(136 Column)data를 A4크기로 자동 축소인쇄할 수 있으며, Face-up 및 Face-down 방식으로 250매의 대용량 용지를 연속으로 인쇄할 수 있다.

## (주)쌍용컴퓨터

### 금년도 주요사업계획 밝혀

쌍용컴퓨터(대표 :崔병항)는 최근 미래의 기술경쟁에 대비해 정보통신분야와 하드웨어 등 고부가가치 상품을 꾸준히 개발, 해외시장으로의 적극진출을 모색하는 한편 심화되고 있는 시장경쟁에의 대응책으로서 전략적인 마케팅활동을 통해 영업력을 강화하고, 사내 기술교육을 배가해 나가기로 하는 등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쌍용이 밝힌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90년초 발표한 전자출판시스템인 '세종퍼블리셔'와 통합 OA용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세종토탈 OA'의 새로운 버전을 발표할 계획이며, 수주개발의 비중을 줄이고 소

프트웨어 패키지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인 LAN사업과 새로운 시도인 WAN사업을 위해 각종 관련장비를 국산화하므로써 가격경쟁의 우위는 물론 이 분야의 해외의존도를 줄여갈 계획이며 통신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계속 전개할 방침이다.

UNIX분야에서는 HANIX의 고기능화 및 이의 Solution을 개발, 세계적 추세인 UNIX의 국내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하드웨어분야에서는 지난해말 개발된 '드래곤 386X'와 레이저프린터인 '레이저아트'의 마케팅에 주력해 갈 생각이다. 특히 쌍용은 이러한 하드웨어와 워드프로세서, 통합 OA용 소프트웨어등 패키지성 소프트웨어제품은 대리점, 협력업체등을 통한 간접판매 비율을 확대하고,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UNIX를 기반으로한 멀티 프로세싱컴퓨터인 시퀀트시스템의 사업확대도 추구할 계획이다.

또한 쌍용은 신규사업으로 지난 연말 개발된 레이저프린터인 '레이저아트10' 외에 별도의 고성능 레이저프린터를 추가 개발, 공급하여 프린터사업을 강화하고, 각종 Add On Board의 개발 확대, S/W 개발향상성도구인 CASE 및 이미지프로세싱시스템과 그래픽 S/W를 개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분야에서는 Bridge, PC-NIU(Network Interface Unit), Transceiver 등 국산화에 성공한 LAN장비들의 해외수출에 이어 쌍용 LAN시스템을 독자 개발 공급할 계획이며, 90년말 구축완료된 쌍용종합정보통신망을 토대로 상용 VAN, EDI 사업의 전개를 모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쌍용은 시스템 통합(SI : System Integration)사업의 확대와 빌딩자동화사업에도 신규 참여할 계획이다.

## (주)에스·티·엠

### 창립4주년 맞아 세계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 다짐

STM(대표 :金영태)은 지난 1월 14일 트윈빌딩에서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주년 기념식을 갖고 2000년대 세계 상위의 선도적 정보처리기업이 된다는 비전을 재천명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거행된 행사에서 김영태 사장은 STM의 3대사업인 시스템통합(SI : System Integration), 시스템관리(SM : Systems management), 전문서비스(IU : Information Utilities)의 기틀을 마련한 지난 4년간을 회고하고 '고객에게 성공과 만족', '종업원에게 기회와 보람'등의 경영이념 아래 비전실현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원 모두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1987년 1월 럭키금성그룹과 미국의 EDS(Electronic Data Systems)가 50:50의 비율로 합작설립한 정보처리 전문서비스회사인 STM은 매년 30% 이상의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종업원 1,200명, '90년도 매출액 514억원의 국내 정보처리업계(Data Processing Industry)의 선두기업으로 떠올랐다.

지난 4년간 그룹 계열사의 시스템 통합 및 시스템 관리에 주력해온 STM은 창립 4주년을 맞아 그간에 축적된 경험과 EDS를 통한 세계수준의 정보서비스 기술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외부사업 진출을 강화하고, 제조, 금융, 유통 및 공공 등의 4개 산업분야에 대해 시스템 통합 및 시스템 관리, 전문 서비스사업을 전개하는 등으로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STM은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라는 이념아래 기존의 사업부를 고객의 산업분야별로 재편하는 등 각 사업부와 지원부서에 대한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인사개편을 단행, 사업부에 대폭적인 권한 이임을 하는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업부는 화학공업을 중심으로한 제1장치 사업부, 소재·선재산업을 중심

으로한 제2장치 사업부, 가전기기·컴퓨터·반도체를 중심으로한 제1전기전자 사업부, 정보통신기기 및 산업전자기기 업체를 중심으로한 제2전기전자 사업부, 금융·보험·신용카드부문의 금융 사업부, 무역과 유통을 중심으로한 무역/유통 사업부, 서비스산업 부문을 다루는 서비스 사업부 등 총 7개부로 재편성 되었다. 이외에 기존의 기술지원실, 연구소, 시스템 지원부문, 재경/인상/총무등은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소폭의 변화가 있었다.

## 한국데이터통신(주)

### 올해 주요업무계획 밝혀

한국데이터통신(사장 :李웅효)은 올해 공중정보통신망서비스·정보은행서비스등 기존 부가통신사업의 매출증대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12월에 시작될 국제전화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통신과의 상호접속협정 및 해외사업자와의 서비스협정을 2월말까지 체결완료하고 8월까지 국제전화용 교환기 설치를 끝내기로 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시설투자재원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발행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데이터통신은 지난달 23일 체신부장관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2월중 1백% 유상증자를 실시, 1백 18억1천만원인

현 수권자본금을 2백36억2천만원으로 늘리고 1.4분기내에 총 4백7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 신규투자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쟁체제에 대비, 경영체질을 개선하고 급변하는 통신사업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기 위해 기본통신·부가통신·행정전산망등 3개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확대, 정착시킬 방침이다.

데이터통신은 올해 국제 및 장거리통신부문의 신규투자계획을 확정, 서울-부산 및 대전-광주간 한국통신관광로를 이용, 기간전송로를 구축하고 서울-평택, 평택-대전, 대전-대구-포항-부산간의 자체 관광로 시설을 확보키로 했다. 또 한국-일본-홍콩, 일본-미국간 국제해저광케이블 2백40회선, 2백10회선을 각각 추가 확보하는 한편 92년 4월까지 위성지구국을 건설키로 했다.

동시에 기존 부가통신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를 추진, 공중정보통신망서비스의 교환기 설치지역을 24개에서 28개 지역으로, 부대장비 설치지역을 23개에서 29개 지역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또 국제디지틀전용회선서비스의 대상 해외사업자를 2개에서 7개로 확대키로 하는등 특정통신회선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 한국컴퓨터(주)

### 금융단말기 「피나클」 호황

한국컴퓨터(대표: 洪승채)가 최근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사용하는 금융단말기 시장에 진출,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기록해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금융단말기 시장은 대형컴퓨터에 강한 IBM이 IBM기종끼리만 호환성이 있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독점적 시장우위를 점해왔다.

한국컴퓨터는 그러나 미국의 금융단말기 전문회사인 ISC와 손잡고 메인 컴퓨터의 기종에 관계없이 접속가능한 「피나클」뱅킹시스템을 도입하고, 각각도 IBM의 절반이하 수준으로 시장가격이 나섰던 것.

한편 회사는 소비자의 욕구가 가시화되기 전에 그 징후를 포착, 상품화시키는 기호론적 마케팅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이동통신(주)

### 중계국 추가 증설키로

한국이동통신(사장: 金려석)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선통신의 수요확대에 대처키 위해 중계국 추가증설을 위한 서비스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해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던 고속버스와 기차내에서의

전화서비스지역을 대폭 추가키로 했다.

또한 정보페이저를 통한 무선데이터사업 실시를 위해 조만간 한국증권전산과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차량안에 서나 보행중에도 종합주가지수 증권시세 산업별 지수등 각종 증권정보 수신이 가능케 된다.

## 한국컴퓨터통신(주)

### 「메신저 400」 개발

한국컴퓨터통신(대표: 姜태현)은 최근 전자우편서비스 시스템인 「메신저400」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메신저400은 다양한 특성의 메시지(문자화상, 음성 등)를 여러 매체(팩시밀리, 퍼스컴 등)를 통해 송·수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또한 운영시스템 구현과 상호연결 기능도 갖추고 있다.

한국컴퓨터통신은 이같은 시스템의 응용을 통해 보다 다양한 기능을 구비한 전자우편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정보통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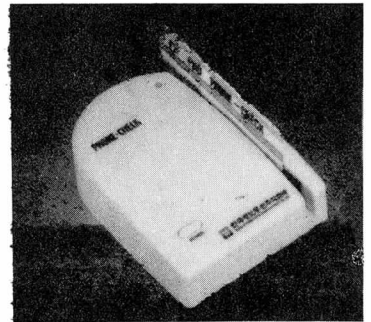
### 신용카드 조회용 단말기 개발

한국정보통신(대표: 洪석우)은 최근 저가형 신용카드조

회용 단말기인 폰체크를 개발,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폰체크서비스는 신용카드를 폰체크단말기에 읽힌 후 전화로 거래승인을 받는 서비스로 단말기 가격이 13만2천 원으로 기존 이지체크단말기의 절반이하로 싼점이 특징이다.

한국정보통신은 이 서비스를 우선 서울 및 경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 이 전 안 내

### 대우정보시스템(주)

대우정보시스템(대표 徐亨錫)이 오는 2월 2일 대우재단빌딩 14층으로 이전한다.

● 이전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26 대우재단빌딩 14층

● 전화 및 팩스번호는 변동 없음

TEL: (02)773-3090~5

FAX: (02)773-5450